

호국보훈의 달, 전방 국군장병 위문

한기총, 청성부대 필승교회 및 6사단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군선교위원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1일 육군 최전방부대인 제6사단 청성부대(사단장 이진영 소장)를 방문했다.

이는 국로방위에 전념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군의 안보상황을 확인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군선교위원회가 주최한 것이다.

먼저 청성부대 필승교회(군종참모 소령 박광훈 목사)를 찾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기도회는 공동회장 최건호 목사의 기도 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주를 사랑하는 자의 복’(시 72:14-16)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엄기호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사람 편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께 주신다”고 강조했다.

군종참모 소령 박광훈 목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놀라운 초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목사님들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청년들에게 전해져서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길 기도한다”고 인사했다.

필승교회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 하사금과 영락교회 담임목사인 고 한경직 목사의 후원금으로 건립된 40평 규모의 건물이다. 지난 2001년 필승교회 건립 30주년을 맞아

영락교회 군선교부, 성심회, 제20여전도회의 후원으로 건물외관 및 실내시설 노후로 재건축했으며, 2015년에는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봉헌했고, 현재 신앙전력화를 위한 최전방의 전진기지로서 청성부대 장병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날 사본무직(미하엘렉톤 한국판매대표) 대표 김현성 집사(안산동산교회)는 아파하 엘렉톤 전자오르간 한 대를 기증했고, 필승교회에 전달했다.

CBS 제29대 이사장 안영진 장로 취임

“하나님만 보고 나가자…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수행해야”

재단법인 CBS 제29대 이사장 안영진 장로가 지난 6월 1일 서울 목동 CBS 사옥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사장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제28대 29대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식에는 CBS 이사와 감사, 교계 인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영진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CBS가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병든 한국교회와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며 “재정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기존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CBS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CBS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취임 예식은 권오서 전 CBS 이사장의 말씀과 한용길 CBS 사장의 인사 순서로 진행됐다.

세계선교협의회 5월 월례회 개최

필리핀 단기 선교, 6월 11일~16일(5박 6일)

월드미션오브코리아(WMK, 이하 월드미션, 회장 한규섭 목사)는 지난 5월 24일(목) 오전 11시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363-8번지에 위치한 연합교회(전순임 목사)에서 5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제 1부 예배는 서기 진인숙 목사(지구총교회)의 인도로 이광우 장로(돌다리교회)가 대표기도하고, 백전 4:7-11 말씀을 본문으로, 회장 한규섭 목사(삼동제일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는 “여러분 세계선교에 헌신 하십시오. 그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라고 전제하고 “첫째로, 서로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두 번째로, 서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수고대는 일 없이 대접하며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셋째로, 서로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자 목사(참사랑교회)의 봉헌기도, 진인숙 목사가 ‘선교회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동남학원이 최고의 학원이 될 수 있도록’ ‘나라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한 후 한규섭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회장 한규섭 목사의 사회로 서기 진인숙 목사의 회임절명, 회장의 개회 선언, 서기 진인숙 목사의 전 회회록 낭독 후에 임임회계 전종호 전도사, 선교회 회계 송민자 목사, 임임회장 김경수 목사, 총무 전순임 목사의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았다.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 기도회 개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제로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는 지난 5월 24일(목) 오전10시 서울시 종로5가 한경직 목사 기념의 집에서 정기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란 공동기도 주제로 열렸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사무총장 김광미 목사의 사회로 이사 설상문 목사의 기도, 상임회장 이금자 목사의 성경봉독, 성악가 정미리야 사모의 특송,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의 마 12:24-28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총괄본부장 김승희 목사의 봉헌기



도,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총재고분 전석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계속된 2부 기도회는 상임회장 최은우 목사의 인도로 앞으로 있을 복미 회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다함께 기도한 후, 이 민

족 모든 민족에게 은혜 주심을 위하여’ 부총재 최연복 목사가, ‘세계 선교 민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소서’ 김준섭 전도사가,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를 위하여’ 상임회계 마진영 목사가 간절히 기도했다.

퀴어축제 반대국민대회 개최키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 7월 14일 시청 앞에서



퀴어축제가 올해도 7월 14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시민사회 단체와 연합하여 퀴어축제에 맞불을 놓는 ‘2018동성애퀴어축제 반대국민대회’ (대회장 최기학 목사)를 개최한다.

이번 반대국민대회는 교계의 지분을 최소화하고 청년과 아이들의 참여폭을 넓혀 풍성한 문화 콘텐츠들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대회측은 지난 6월 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차 준비위원회를

열고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장에는 예상 대신 부총회장인 이주호 목사가 선임됐다.

이 목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고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악한 세력들은 파괴시키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질병과 고통, 가정의 파괴 등 엄청난 불행을 자행하게 된다”면서 “대한

민국의 심장부인 시청앞광장에서 드러내놓고 악을 조장하는 축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대회측은 이날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김선규 목사와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를 국민대회 고문으로 추대하고, 한기총과 한기연, 한교총, 한성총과 함께 협력해서 국민대회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타 종단의 대표와 각 총회장, 증경총회장, 시민단체 대표를 가운데 공동대회장을 추대하여 다음 준비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문실행위원장에 김원평 교수를 선임해 강사진들을 구성키로 했다.

대변인은 박종언 목사(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가 선임됐고, 행정팀장과 각 분과위원장 등 세부 조직은 준비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위임됐다.

가평기독교연합회 연합찬양예배 드려

신천지 반대를 위한 걷기대회도 가져, 가기연 이대위 주최

가평기독교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몬테리고국제학교가 주관한 ‘가평기독교연합회 연합찬양예배’가 지난 6월 3일 오후3시 가평군 문화회관에서 드려졌다.

이번 연합찬양예배는 신천지 반대를 결의 열린 예배로 1부예배, 2부 오페라 갈라콘서트, 3부 신천지 반대를 위한 걷기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가평장로교회 필그림찬양단

의 찬양, 장익봉 목사(청평장로교회)의 기도, 정성기 목사(가평장로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찬양의 힘과 기적’이라는 주제의 오페라 갈라콘서트에는 sop 이시라 · 이한나 · 윤하나 · 윤마리아, ten 강남규 · 박성민 · 조용필, ba 김세혁, 클라리넷 김영갑, 피아니스트 김선용이 출연해 ‘열정과 감동의 순간’, ‘성령 충만한 은혜의 물결’, ‘찬송함이 이름

답고 마땅하도다’ 등 다양한 오페라의 아리아를 불렀다.

가평기독교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가평 읍내에서 신천지 반대를 위한 걷기대회를 갖고 앞으로도 신천지 침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재)81운동UN/유네스코기념제단, 열린복지재단, 몬테리고오페라단 등 여러 단체가 후원했다.

세계바울부흥선교협, 실행위 개최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위해 특별기도



세계바울부흥선교협의회(대표회장 심재선 목사)는 지난 5월 25일 오전11시 올림피아크렐 이리에서 오전기도회 및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최남복 목사 사회와 기도로 노병훈 목사의 성경봉독, 황준익 목사의 눅 12:4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향 목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고, 믿음은 말씀에 두고, 생활은 성전에 두고,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해나가기”고 강조했다.

가대업 목사의 한금기도, 황준익 목사의 한금송, 조지현 목사의 성사낭송, 김중석 목사의 광고 후 최남복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오찬 기도회 및 실행위원회 심재선 목사의 사회로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국가안보와 경제회복에 대해’ 특별기도 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협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후 다음 모임을 7월 27일 갖기로 하고 이승진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FC서울, 2018 기아대책 HOPE CUP 위한 후원금

선수단 십시일반 모아 후원금 기부

기아대책 120명의 결연아동이 참여하는 축구행사에 FC서울이 함께한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오는 9월 열리는 ‘2018 기아대책 HOPE CUP(호프컵)’을 위한

후원금을 FC서울이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FC서울 선수들이 참여해 십시일반 모았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오는 9월 열리는 2018 기아대책 HOPE CUP을 위

해 사용된다. FC서울 주장 신광훈은 “이번 대회를 참가하는 모든 아이들이 ‘축구’라는 희망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2018 기아대책 HOPE CUP’ (대회장 안정환)은 전세계 10개 국 기아대책 결연아동 120명을 초청해 진행되는 행사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축구라는 도전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5개국(대한민국, 몽골,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아프리카 3개국(마다가스카르,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아메리카 2개국(멕시코, 볼리비아)이 참가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박상규 목사)는 지난 5월 28일(월) 오전 11시 새벽별교회(담임 고현진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을 서로 격려하며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심혜원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김철성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16:24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제물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함고고 어려운 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회계 박운석 목사의 헌금기도, 김철성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지방회장 박상규 목사의 인도로 열린 월례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새벽별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오찬을 함께 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6월 12일(화) 오전 11시 순복음복있는교회(담임 황연선 목사)에서 6월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는 한편 서로 격려하고 나라를 위해 교단과 지방회, 개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회계 박영욱 목사(순복음잠잠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안병설 목사(순복음장성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무 조경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대하 20:1~13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제목의 설



교를 통해 “여호와사탄 왕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의 신앙을 본받아 어떠한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부회장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

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홍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지방회장 홍현철 목사의 사회로 하계수 양회와 기타회무를 진행하고 순복음복있는교회(황연선 목사)에서 대접하는 풍성한 식사를 함께 한 뒤 송정바다 갑곶길을 걸으며 서 치를 마시며 사랑나눔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목사안수 및 장로장립, 권사취임예배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일선 목사)는 지난 5월 28일(토) 공주충북기독교원(담임 김옥연 목사)에서 박은규 전도사, 박안나 전도사 목사 안수식과 장로장립, 권사취임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홍식 목사(순

복음성기는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기 윤옥 목사(성신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문에스터 목사(순복음기적교회)의 특송, 지방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담전 1:12-17 말씀을 본문으로 ‘직분자의 신앙자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직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하나

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길” 축복했다.

재무 김영희 목사(등대교회)의 헌금기도 후 목대원 동기생들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어 안수식은 지방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안수위원 오승욱 목사, 황수만 목사, 임영신 목사의 안수, 성의작을, 지방회장 오일선 목사의 공포 후 임직증서, 임직패를 수여했다.

이어 축복기도원의 김창기 장로장립, 임영순 권사취임 후 증경회장 조원의 목사(추계교회)가 권면을, 증경지방회장 원본경 목사(세종순복음교회)의 축사, 유순욱 목사(안양성령교회)의 축사, 증경회장 장호순 목사(순복음금강교회)의 격려사에 이어 임직자의 인사말씀 후 증경회장 류승창 목사(순복음이울림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며 지방회 전회원들은 임직을 축하했다.



목사 안수 예배, 진솔한 목회자 다짐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반인홍 목사)는 지난 6월 4일(월) 오전 11시 복인교회(담임 김진홍 목사)에서 신동임(산돌교회), 김리함(서랑의순복음교회), 손인환(새벽교회) 전도사의 목사임직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감당을 위해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성진 목사(충민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정근 목사(명성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회계 이한숙 목사(리광순복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반인홍 목사(송도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반 목사는 딤후 1:12-16 말씀을 본문으로 ‘진솔한 목회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진솔한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목회자가 될 것”을 강조하며 참여회원과 성도들을 축복했다.

2부 임직식은 반인홍 목사의 진행으로 안



수위원장 반인홍 목사 외 안수위원으로 박금출 목사(순복음소명교회), 이정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가 수고하였다.

서약, 안수기도, 성의 작의 및 약속, 공포, 임직패수여 등의 순서로 임직식을 은혜롭게 가진 후 3부에는 권면과 축사의 시간을 가졌다.

증경회장 박금출 목사의 권면, 정진균 목사의 축사, 김리함 목사의 인사말, 반인홍 목

사의 축도로 임직 예배 및 임직식을 모두 마쳤다.

이날 임직자대표 김리함 목사는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축복해주신 회원 및 가족, 성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세 임직자들은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모든 순서를 은혜기운에 마쳤다.

초심교회 창립감사예배, 복음전파 헌신 다짐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김병목 목사) 초심교회

(담임 김희자 전도사)는 지난 6월 2일(토) 오전 11시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지역사회복음화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만구 목사(충



은나루교회)의 사회로 서기 차재현 목사(엘렌앨홍교회)의 대표기도, 윤인주 전도사의 특별찬양, 교단 부총회장 엄기설 목사(은혜와찬양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마 16:13-20 말씀을 본문으로 ‘반석 위에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 위에 세우신 든든한 초심교회가 되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고, 천국열쇠를 받은 교회가 되어 기도응답과 문제해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하였다.

초심교회 김희자 전도사는 예배예배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전하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생명을 다해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박성환 전도사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오병용 목사·아멘순복음교회)는 지난 5월 26일(토) 오전 11시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달천교회 박성환 전도사의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를 드리고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용 목사(서희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경준 목사(순복음후영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서기 신병설 목사(주사랑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부교역자의 특

송, 교단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요 10:11-16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선한 목자는 첫째,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충성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의 형편을 따라 양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들을 반쯤으로 지키고, 맹수들이 와서 양들을 해치고 물고기면 악착같이 쫓아가서 그 맹수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는 사람이며, 둘째, 선한 목자는 양보다 앞서가는 목자이다.’라고 전하고 “주님이 양들

을 위해 목숨까지 버치신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반쯤이 물결, 시간, 자기 몸을 드리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2부 임직식에서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는 먼저 박성환 전도사로부터 임직서약을 받고 곧 바로 박성환 전도사의 안수례가 진행됐다. 안수례가 진행되는 동안 지방회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함께 안수 받는 박성환 전도사를 위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고, 안수 후 안수위원들과 약속례와, 지방회장 오병용 목사가 박성환 전도사가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다.

이어 안수위원들은 안수 받은 박성환 목사에게 성의를 착의하였으며 목사안수증서와 목사안수패를 수여했다. 제3부 축하의 시간에는 증경회장 이동수 목사(한희 순복음교회)와 증경회장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축사와 윤경현 목사(은은순복음교회)의 권면이 있었으며, 안수 받은 박성환 목사의 담사와 광고, 증경회장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의 축도로 박성환 목사의 아름답고 건강한 목회를 소망하며 축하와 축복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받은 은혜(구원)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김병호 목사)는 지난 6월 11일(월) 오전 11시 선한이웃교회(담임 은금홍 목사)에서 6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김비율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전하세 목사의 기도, 서기 조영진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엄하석 목사(주성교회)의 설교, 회계 최규자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이날 록 17:11-19 말씀을 본문으로 ‘빈손의 감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10명의 분동병자가 다 치료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 엎드려 예수님께 빈손이지만

감사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한 명과 아홉 명의 차이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구원)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자”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한 뒤 통성으로 합심 기도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곧 바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특히 경기지방회

부흥성회(10월 17일(수)-19일(금) 오전 11, 저녁 7시 30분)를 통해 개교 부흥을 도모하기로 결의하고, 또한, 선한이웃교회는 은금홍 목사와 이정열 사모의 고(古)를 기념하여 회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회원들 간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④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⑤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 생명의 말씀 ■



이 인규 목사

· 교단 서기 역임
· 안산시흥지방회장
· 아세아순복음교회 담임

우리 주님의 생은 고난의 생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딸구유의 탄생으로부터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에 피난한 것,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로 성장한 것, 삼 년의 공생애의 고생, 최후의 십자가의 고난 등 모두 고난으로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1. 먼저 인성을 가지시고 고민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서는 여러 제자들에게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면서 한 곳에 있게 하고, 세례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기도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놀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막 14:34)고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놀라시며, 두려워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에 대해서 불안하고 슬퍼하며 고민하였습니다.

요 8:57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아직 오심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삼십세 된 예수를 오심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영 육간에 병든 자를 위해 동정하시며, 죽어가는 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사 애타고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육체는 피곤하고 쇠약해져서 마치 오십살이나 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민이 컸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인성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2. 진액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더 가셔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 하나이다”였습니다.

주님은 극도의 고통과 함께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몸에서는 진액이 빠졌는데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흐르는땀에 피가 함께 섞여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서는 하나님께 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 짐을 대신 지기 위하여서 그 몸에서는 생명의 액체를 쏟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수난의 기록 중에서도 가장 애쓰시고 슬퍼하시던 때는 이 셋째마네 동산의 밤인 것입니다.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셨기에 그렇게 뜨겁고 진한 땀이 피와 같이 흘러 내렸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힘써서 사병 감당하기 위해, 나라와 민족의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 교계와 교단을 위해, 교회와 이웃을 위해 간절히 눈물과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3. 험한십자가를 처절하게 지고가신 주님의 고난을 바라봅시다.

셋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신 주님께서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으신 후에 흉포를 입으시고, 철시의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셋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은 이미 육신적으로도 기진맥진한데다 법정에서 갖은 고문

으로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이었을 텐데 거기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니 넘어지고 쓰러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더 이상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로마 병정은 구레네 시몬을 붙잡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나 분명히 주님께 도움이 되었고, 또한 그 자신과 가정에는 구원을 받고 축복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4. 십자가에 달려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침내 주님은 골고다에 이르러 십자가에 달려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가시 면류관 때문에 선혈이 흐르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었으니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군병들은 그것도 부족하여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심장이 파열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못에 박힌 주님의 손은 소경의 눈을 아무만지면서 소경을 뜨게 하였던 손이요, 그 손은 어린아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손이며, 각색 병자를 고쳐 주시던 손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손이요, 오천 명

을 먹이신 손입니다. 축복과 은혜를 주시던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또 못에 박힌 주님의 발은 어떤 발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찾아가신 발이요,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발이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발입니다. 이 귀한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구리까지 찔림 당하신 주님의 고통은 어디하였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시는 엄숙하고도 거룩한 장면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극한의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화와 자유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었으며, 죄로 인한 병든 우리의 영혼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세상의 욕심, 세상의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해도 낙심치 않으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제4조에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가 있다. 이에 의하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중간강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110만 명에 이르는 생명들이 낙태에 의하여 스러져가고 있다. 이는 심각한 생명경시 현상이다. 그런데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분명히 더 많은 생명체가 어머니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죄”는 존속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처벌 위주가 아니라 생명 존중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동 정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



한국대학기독교총장 포럼(회장 정상운 박사)이 4일 서울 노원동 노보텔엠베서더 강남호텔에서 ‘제5회 포럼’을 열었다. 이날 ‘한국교회 위기와 교회 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정일웅 박사(총신대 전 총장)와 정효제 박사(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총장)가 발제했다.

경주시기독교연합회 조찬기도회



경주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상정 목사)와 경주시장로회총연합회는 6일 오전 8시에 경주호텔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김상정 경주시기독교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자”고 말했다.

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방한



한국구세군(김필수 사령관)은 개전(開戰) 110주년을 맞아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한국구세군 110주년 기념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기념대회 중에는 전국 4개 장소에서 기념예배가 열리며, 국제구세군 대장(大將) 안드레 콕스(Andre Cox)가 한국을 방문해 기념 예배를 인도한다.

동성애 옹호 정책 반대 결의문



경북기독교총연합회(경북기총·대표회장 이장희 목사)는 4일 경북 문경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에서 제2회 목회자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정부의 동성애와 성평등 옹호·조장 정책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300여 명의 지역 목회자는 결의문에서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를 반대한다”면서 “민약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받고 동성결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낙태죄, 합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태아를 생명체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지난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12년 한 차례 위헌 여부 심리가 있었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태아의 생명권 이 중요하나? 아니면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냐를 따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우리 법률 체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하여 엇갈린 주장이다.

민법에서는 태아를 한 인격체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고 자연인처럼 권리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태아일든 영아일든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이면 ‘낙태죄’가 성립된다. 출산 후 죽이면 ‘영아 살해죄’가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낙태죄”는 현행,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보면, 제269조에서 ‘부녀가 악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70조에도 보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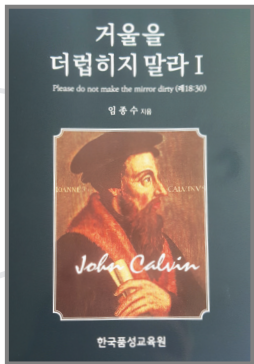
이러한 규정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미 발생한 생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1953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를 ‘위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어지고 있

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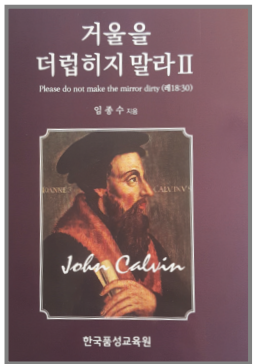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 세대를 통하여,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계승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분명 축복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를 두고 벌이는 ‘합헌’과 ‘위헌’ 논란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와 같은 격앙된 목소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물론 여성의 건강이나 성폭력 등에 의한 임신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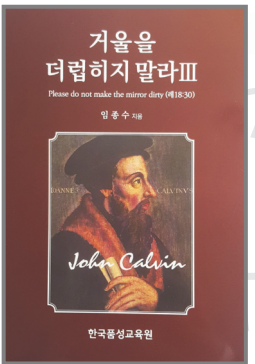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든 어떤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하고 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신천지의 실상과 대책·대응 전략 세미나

한기총 신대위 홍계환 목사,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신천지대책위원회(위원장 홍계환 목사)는 신천지의 조직 특성과 그 실태에 관한 ‘신천지 집단의 실상과 대책·대응 전략 세미나’를 지난 5월 25일 오후 기독교 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엄기호牧사는 1부 예배 설교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옮겨 여기를 받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세미나가 우리가 신천지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2부 세미나는 위원장 홍계환 목사의 사회로 이순필 목사(전분위원), 진술현 목사(전분위원), 이주미 목사(전분위원), 심우영 목사(전분위원) 등이 발제를 맡았다.

홍계환 목사는 “한국교회 기운 안에 불어는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스티커는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신천지를 막을 수 없는 무의미한 방어책이다”라면서 “신천지가 정통교회에 잠입해 내부 전도활동과 교회 혼란을 조장하는 추수꾼, 산 옮기기 전략 등은 현재 신천지 집단에서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천지 대책을 지적했다.

이어진 2부 세미나에서 전문위원 이순필 목사는 ‘신천지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신천지는 지금 이민의 수술, 김남희 이탈, CBS 프로그램에 대한 대법원의 공익성 인정, HWPL 행사 대관 불발, 장종체 육관 이용허가 취소, 대통령 선거 네거티브 전략 등 다양한 사건을 치르며 내부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때문에 최근 ‘신천지 12차’와 인 맞을 확인시험’을 열어 신도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의 조직과 운영, 실태’에 대해 발제한 진술현 목사는 신천지의 확산 속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진 목사는 “과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포교를 펼쳤던 신천지는 이제 중소도시로 많이 확산됐으며,



새로운 공략대상이 무 신앙과 휴 신앙까지 확산되고 있어 해외 거주 한인 및 현지인들의 포교 확산 속도가 심각하다”면서 “그동안 대도시 중심, 교회 중심, 국내 중심으로만 포교활동 하던 것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적극적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주미 목사는 한국교회의 신천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방어가 오히려 신천지 피해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천지는 이단이니 조심하라”고만 가르칠 뿐,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 교리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쳤다면 지금처럼 급속도로 신천지 신도가 급증하지도,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신천지 신도들은 거짓, 사기, 기만에 의해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대학생 논문 조사를 목적으로 학교 밖이나, 변화가에서 설문조사 협조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특히 익명이 아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무료 심리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상담소가 아닌 카페, 스티디움, 빈 강의실, 가

정집 등에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포섭을 위해 종교적인 대화는 최대한 배제기도 한다.

혹시나 자신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기억을 되짚어 신천지 사람을 만난 이후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단들의 특성과 신천지,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심우영 목사(전 한대종교 편집국장)는 “한국교회는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의 발호에 대해 무엇보다 먼저 ‘성경’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간의 판단이나 해석이 아닌, 오로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으로 돌아갈 때, 이단사이비의 간교한 계락을 이기고 말세지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사도적 전승을 인식하고 어느 날 특정인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신비주의적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홍 위원장은 “한국교회는 신천지인들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여 한국교회는 이들에 대한 대책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때라고 본다”며 “곧 2차 세미나를 부산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의 성찰과 국민화합 기도회

국민화합과 침체된 교회성찰, 국력의 하나됨 등 결의문 채택

한국교회의 성찰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도회가 지난 6월 7일(목) 오전 7시 30분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열려, 국민화합과 침체된 교회성찰, 분열된 국력의 하나됨, 십자가 위에서 세워지는 공의와 진리의 시대 선포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강욱 장로(개혁부총회장, 샘터중앙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김동권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의 환영사, 최병두 목사(통합 증경총회장)의 기도, 예한나 선생(화곡그리스도교회)의 성경봉독 후에 임성택 목사(전 그리스도대학교총장)가 다음, 그 위대한 회복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성택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해법을 얻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가진 물맷돌이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쓰러뜨리고 이길 유일한 하나님의 수단이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물맷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목사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기독교를 세속적 단계와 종교로 만들어버린 만민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버티는 것은 기독교가 갈수록 사라지고, 대체 종교가 없기 때문이다. 가톨릭의 성장이 매섭다. 이슬람이 무섭게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탁기 목사(그리스도교협 증경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순서는 황교안 전총리(성일침례교회)와 김진

호 감독의 격려사에 이어 김형태, 채주연 전도사의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창, 최장구 목사(한강중앙교회)의 폐회기도, 장병찬 목사(한지협 이사)의 조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문 전문

이번 기도회는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진영논리의 충돌로 인한 상처와 치유를 위하여 진정한 국민화합과 침체된 교회성장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행할 것을 소망한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우리 민족의 영원인 평화의 대로가 열리는 분단 68년 정점에서 진보는 보수든 구국의 결단 민족의 이름으로 풀고 분열된 국력이 하나가 될 것을 기원한다. 성경적인 진리와 역사적인 시선으로 볼 때 한 민족의 슬픈 역사는 누구든 상황논리로 정죄 할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 위에서 세워지는 공의와 진리만이 시대를 선도할 것을 확신한다.

한국교회는 민심의 선진들이 순교로 일군 영적옥으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매진했지만 세속화되어 전도가 막힌 모든 교회와 교계의 지도자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침체된 교회의 성찰과 국민화합을 위한 오늘 기도회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적 효상으로 실존된 효가 회복되고 보다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날 것을 기도한다.



한기총 임원회, 통합문제 대표회장에 위임

회원 일부 통합반대... 문제는 WCC 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6월 8일(금)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3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25명 참석, 8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 토의가 이어졌다.

한교총과의 연합의 건에 대해서는 한교총과 연합 혹은 통합을 한다는 것이 현재 한기총 정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건에서 ‘한교총’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까지 진행했던 통합에 관한 합의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지난 29-2차 임원회(6월 11일)에서 부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

원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가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한국교단 연합추진위원회’로 명명하기로 하고 5인의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으며, 대표회장이 위원을 구성하여 차기 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한 회원은 연합추진위에서 앞으로의 추진과정이 난항이 될 것으로 본다면 임시형 증경총장이나 이 건호 상임회장의 주장처럼 wa연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증폭될 것이라고 말하고, 서로의 문제들을 잘 풀어 한국교회가 하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과 함께

심리 치료 프로그램 진행 “기다림, 세월, 소중한 사람”

《세》사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에 위치한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 룸에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모임인 ‘도너페밀리’들을 위한 소모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 2013년부터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인 도너페밀리의 소모임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한희생명(대표차남규)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소모임은 ‘기다림, 세월, 소중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그림책을 통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유경 강사는 前 CBS 아나운서 출신의 사회복지사이자 시니어 그림책 강사로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도너페밀리들은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그림책으로 함께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도너페밀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쉽사리 이야기하지 못했던 장기기증에 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또한 도너페밀리들은 자신의 손을 그리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의미를 되새겼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도너페밀리들은 생명을 살린 결정을 스스로 격려하며 상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소모임은 신재창 이식인원 3명이 함께해 더욱 의미

가 깊었다. 장기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식인들과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기증인 유가족들의 만남을 통해 감사의 마음과 함께 생명나눔이 지닌 위대한 가치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도너페밀리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미나 팀장은 “매해 도너페밀리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그 분들의 아픔을 치유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한다”며 “이번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도너페밀리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잎, 청호오일, 선향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목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잎, 독활오일, 삼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향리향오일, 윈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통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운전시/수험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잎,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 로제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서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을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랜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랜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서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을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날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아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아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세아버터, 마카데미아씨앗오일등

⑨ 젤투케어 립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럽고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분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긋한 향기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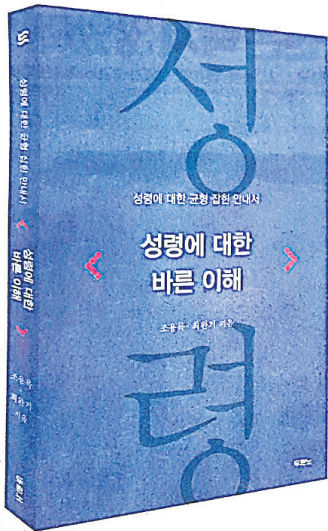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 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결혼114 全國支社 및 會員 모집

【저 出産, 고령화 社會의 최대 관심 有望사업】

각 교회 미혼 남, 여 청년들의 결혼이 교회마다 심각한 점과 개척교회의 심각한 교회재정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결혼114와 함께 비즈니스선교와 전도를 위한 전국 지사를 모집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 및 교회 중저직분들을 전국지사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4차産業革命 정보共有사업

1. SNS, 블로그 제작 支援
2. 매칭 本社 지원
3. 營業 및 商談 지원
4. 收入 年 4,000만원이상
5. 지역獨占 영업권부여
6. 新 사업기회 제공(여행업)

■ 결혼회원 모집

1. 등록비 年 54만원 最低비용
2. 基督教人 회원 多數
3. 전문직, 僑民회원 多數
4. 공무원, 교사, 대기업, 사업
5. 年 3회 결혼미팅파티 招請
6. 全國的 회원 多數

□ 결혼114와 他社의 서비스分析

비교항목 / 구분	서울 중개업체	결혼114	지방 중개업체
일반 회원 가입비(1년)	140만원~600만원	54만원	50만원~150만원
매칭 서비스 (1년)	4회+3회~5회+5회	셀프 매칭 무제한	5회 또는 성혼시까지
성혼사례비	없다	없음	200만원~300만원
특별 서비스(단체 미팅)	없다	년 간 3회이상 결혼미팅파티 초대	없다
콜백서비스	있다	있음	없다
서비스지역	전국	전국	지방(제한적)

☎ 상담전화(전국) 1566-5049

□ 홈페이지: WWW.결혼114.COM

□ 신고번호:대구-중구-국내-2015-0006호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①호 270만원 ②호 370만원 ③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 아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7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8년 7월 9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7월 3일(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6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임 웅 재
총 무 목사 신 재 영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http://agpgs.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태권도에 복음을 심고 세계를 하나로”

제6회 할렐루야컵 세계태권도대회 보고서

세계스포츠포츠선교회(이사장 이광훈, 대표회장 임석순 목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크로아티아 칼로바츠 시립체육관에서 제6회 할렐루야컵세계태권도대회(대회장 정재규 목사)를 개최하여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과 임원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문화를 보급하는 등 선교사역에 지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독교의 진체와 더불어 유럽과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이방종교의 급증과 이방문화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태권도를 매개체로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청소년들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유럽과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한 동유럽 크로아티아에서 2008년 10월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오는 할렐루야컵세계태권도대회가 금년에는 제6회 대회로 태권도 보급 50주년을 맞이하는 크로아티아와 함께 크로아티아 칼로바츠 태권도오픈대회와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크로아티안 장애인태권도대회를 세계스포츠포츠선교회 주최로 통합 개최하였다.

금년 대회에는 15개국(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헝가리, 알바니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루센부르크, 오스트리아, 독일, 한국) 90개 태권도클럽에서 900명(선수 300명, 겨루기 600명)의 선수가 출전했고, 관객자 250명(일반 60명, 코치 120명, 임원 60명, 진행자 10명), 관중 2,000명 등 총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명실공히 국제대회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대회 당일 오전 9시 칼로바츠 시립체육관 구빈실에서 진행된 환영식에는 대회 임원과 각국의 참가임원, 크로아티아와 칼로바츠의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칼로바츠 시장 Damir Mandić, 크로아티아 교육부장관 Dragan Primorac, 크로아티아주재 대한민국 대사 박원섭, 대회장 정재규 목사, 현지 침례교회 Vladimir Ruzicka 목사에 대한 소개와 소개받은 인사들의 인사말과 환영사가 있었고 이어서 준비된 만찬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에서는 칼로바츠 민속팀과 여학생체조팀의 공연 후 칼로바츠 Damir Mandić 시장은 환영사에서 크로아티아와 칼로바츠 시가 발전하고 한국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게 된 것은 할렐루야컵세계태권도대회가 TV에 방영된 결과라면서 감사했고, 크로아티아 Dragan Primorac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할렐루야를 6년이나 언급하였다. 대한민국 박원섭 대사도 한국의 태권도를 사랑하는 출전선수들과 임원들을 격려하며 할렐루야컵대회를 주최하는 본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대회장 정재규 목사의 영예설교가 이어졌다. 5분 동안 합창에 섰던 복음의 말씀이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태권도 보급 50주년을 맞아 크로아티아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장이 수여되었고 특별고인인 된 크로아티아 태권도 최고 수련자 리콜라 페치고(태권도 8단, 73세의 손자에게 의미있는 특별공로상이 수여 되었고 크로아티아에 태권도를 보급



한 이광배 사범(74세 태권도 9단)은 2017년 12월 한국 국가원에서 9단과 8단 심사에 응시한 자신의 제자 칼로바츠 태권도클럽 회장 미로브레젠과 두가레사 태권도클럽 회장 겸 부시장인 리콜라 카에게 개회식에서 국가원 공인 9단 단증과 8단증을 수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 이후 저녁 10시 30분까지 경기는 계속되었고, 진행자들은 여유 시간도 없이 경기를 계속 진행해야만 했다. 출전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결과 장애인대회의 종합우승에는 자그레브 팀, 준우승 칼로바츠 팀, 3위 이태리 팀이 각각 차지했고 할렐루야컵 세계태권도대회와 칼로바츠 오픈대회에서는 보스니아 종합우승, 크로아티아 준우승, 3위 몬테네그



로, 4위 헝가리, 5위 루마니아 국가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몇몇 국가(이태리, 룩셈부르크, 스페인, 우크라이나, 독일) 선수단은 경기 전에 미리 현지에 도착하여 전지훈련에 임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몬테네그로 팀은 현지에 도착하여 훈련 캠프를 설치하고 경기를 준비하는 열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 열정과 노력의 3위의 성적을 거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년 대회를 주관한 크로아티아 칼로바츠 태권도클럽 회장 미로브레젠(태권도 공인 9단)의 완벽한 조직과 매끄러운 진행이 눈에 띄었으며 최신 전자 장비로 준비된 심판 판정은 출전선수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다.

본 대회 개최를 위해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정재규 목사는 규모와 뜨거운 열기, 그리고 크로아티아 교육부 장관, 칼로바츠 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가의 태권도 임원들의 높은 호응에 놀랐으며 앞으로 할렐루야컵대회가 월드컵축구대회와 같이 권위 있는 대회로 성장하여 온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기독교문화를 확산하여 복음전파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대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계속해서 할렐루야컵 세계태권도대회가 개최되고 발전하면 좋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크로아티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박원섭 대사는 할렐루야컵 세계태권도대회가 국위를 선양하고 민간 외교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멋진 특색 있는 대회라고 격려하며 10년 전부터 대회를 주최해온 세계스포츠포츠선교회에 경의를 표하며 대사관 관저에 한국에서 참가한 임원들을 식사 초청하기도 하였다.

‘아빠와 함께 추억 만들기’ 나눔교실

나사렛대, 장애아동 위한 행사 열어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 유아특수교육과는 지난 5월 26일(토) 지역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 추억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이 지원하고 유아특수교육과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충남지역의 장애아동 가족(아버지, 비장애 형제 포함 총 53명),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그리고 예비특수교사, 총 72명이 참여했다.

가족과 예비특수교사들은 함께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팜랜드에서 가족이태미, 동물 먹이주기 체험, 가족놀이 한마당공연 관람, 양떼몰이, 호밀밭 축제에 참여했고, ‘전문가와 아빠가 함께하는 나눔교실’을 열어 가슴에 담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22명의 아버지들은 자발적으로 ‘아버지 지조모임’을 결성하여 향후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의 교육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뜻을 나누기

로 했다.

행사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나사렛대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자녀와 함께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아빠 모임까지 결성할 수 있어 참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전문 교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아특수교육과 홍은숙 교수는 “작지만 아버지의 교육 및 양육참여가 자녀에게 작은 날개를 달아줄 수 있고, 결국 가족을 위한 큰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하였으며 오세철 교수는 “지역사회 장애아동 가족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특수교육과는 작년에 이어 올 9월에도 충남지역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태안 천리포수목원 에코힐링센터에서 가족힐링 캠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난민 아동 후원 업무 협약 체결

월드비전, 국립현대미술관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 www.worldvision.or.kr)이 지난 6월 11일(월) 오전 10시 국립현대미술관과 난민 아동을 후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현대미술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월드비전 분쟁피해지역 아동보호 사업 후원을 위해 마련됐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마리관장 등 양사 임원이 참석했다.

월드비전은 16일 진행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주관 ‘MMCA런’ 행사에서 분쟁피해지역 아동보호를 위한 ‘아이엠(I AM)’ 캠페인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모든 참가자들은 분쟁으로 고통 받는 난민 아동의 현실을 알리고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난민의 신분을 상징하는 팔찌를 착용하고 달린다.

국립현대미술관은 ‘MMCA런’ 행사 참가비 전액(1인당 1만 원)을 월드비전 우간다 남수단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미술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어른들의 분쟁으로 고통 받는 난민 아동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립현대



미술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월드비전은 여러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난민 아이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MMCA런’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주변의 도심과 자연을 함께 달리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삼청동 일대와 청와대 앞길을 지나는 7km의 러닝 코스를 달리고 미술관 전시를 관람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www.mmc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고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For your Healthy Life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전 세계 성경전서 3,860만 부 반포

세계성서공회연합회 2017년 세계 성경 반포 현황 발표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17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에 성경전서 약 3,860만 부가 반포되었으며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5천 4백만여 부의 성경이 반포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성경 반포
2017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의해 반포된 성경 중 2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반포되었으며, 이 중 790만 권 이상이 웹 사이트와 유버전(YouVersion)과 같은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로드 되었다.

성경 다운로드가 성서공회 외에 별도로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온라인을 통한 반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중동 지역은 성경 다운로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반포된 성경의 44%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었다. 미주지역의 경우 성경 다운로드가 540만 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성경이 인터넷을 통해 반포되었다.

분쟁 지역에 반포된 성경
남수단에서는 내전으로 약 4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추방당했지만, 성경 반포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내전 시작되기 1년 전만 해도 성서공회를 통해 반포된 성경은 약 6,000권 남짓이었으나, 2013년 12월에 내전이 시작된 이래로 26만 권 이상의 성경이 반포

되었다.
한편, 2011년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에는 성경전서 35만권을 포함한 2백만 권의 성경자료가 반포되었는데 2017년 시리아에서만 20만 권의 성경이 반포되었다. 시리아에 있는 성서공회 담당자는 지난 7년의 전쟁 기간에도 알레포시 서점은 거의 매일 열려 있었으며, 지난 성탄절 기간에 특별 성경 반포 행사도 열었다고 말했다.

“성경을 선물로 받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여기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문맹자들을 위한 성경 반포
작년 이집트에서는 문자교실 프로그램을 위해 130만 권의 성경 소책자와 전도지를 반포하였다. 아린 사절 마리(Mary)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 늘 함께 글을 읽고 써야했던 그녀는 이집트성서공회에서 진행하는 문자교실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제 삶의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이전에는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제는 자유로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박영수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되어 우리 교회가 왔다. 주일 오후에 배운 성도들에게 이 특별한 전도법을 현장실습해 주기 위함이다. 우리 은광교회는 이 지역에 개척하자마자 곧바로 전도를 시작하였다. 수요일과 토요일에 쉬지 않고 전도를 하였더니 지역주민들과도 친숙해졌고, 꽤 많은 분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 라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평내순복음교회에서 가족세트전도세미나 아카데미에서 보았던 동일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목사님을 대하는 내 마음에 자칫 좋은 관계를 형성해온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전도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부천지역 사람들도 목사님의 손을 얹는 안수기도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대단하다' '넌 내 마음에 더 이상의 진보는 일어나지 않았다' '전도는 박영수 목사님이 강조했던대로 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테일은 있는 거지' 라고도 또 내 나름대로의 결론 같은 마음을 지켰다.

박영수 목사님이 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에 세번째로 우리 교회가 왔다. 일정이 바빠 한 교회에 이렇게 여러 차례 올 수가 없는데 특별히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했다. 아마도 담임목사님의 교회부흥의 소망과 장로님의 전도 열정 때문에 성령님이 박영수 목사님을 감동시키셨나보다. 다행히 동광교회와 동지교회의 권사님들이 오셔서 예배가 한껏 부흥화의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찬양과 기도와 치유의 성화를 마치고 현장전도를 나가는 이 날에는 비가 꽤 왔다. 예배에 집중호우경보가 있을 정도여서 바지가 다 젖을 정도로 거센 비가 내리고있는데도 목사님은 전도는 쉴 수 없다고 하면서 나가자고 했다.

이 말씀에 여러 날동안 결론같이 내렸던 내 마음이 확 깨지고 열리는 것을 느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이것인가 하였다.

우리는 우산을 쓰고 공원으로 나섰다. 놀랑케도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기도를 거부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들의 연락처를 받았다. 우리 은광교회의 모두는 마음에 큰 물결표를 안았다.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제8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 개최

KBS홀에서 1천 500여 명의 관객들에게 큰 감동 선사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지난 6월 2일 KBS홀에서 '제8회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를 개최했다.

CTS 창사 23주년을 기념하고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기독교문화와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개최된 이번 합창제는 △수원명성교회 '명성소년소녀합창단' △여의도침례교회 '어린이찬양대' △우이제일교회 '유치부 새싹성가대' △하늘중앙교회 '드림엔젤스' △CTS강서양천소년소녀합창단 △CTS북부소년소녀합창단 (가나다 순) 등 총 8팀이 참가했고, 광림교회 어린이영아뮤지컬 '모멘텀' 팀이 영어 뮤지컬로 특별출연하여 감동하고 발랄한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코리안 오케스트라 앙상블의 특별공연으로 아름다운 7중주의 선율을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순서로 세계적인 거장 율학원 감독(CTS에술단 감독 겸 CTS소년소녀합창단장)의 지휘 아래 4백여 명의 참가팀 전원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연합 합창하여, 1천 500여 명의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CTS 고장원 사장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CTS가 영상을 통해 기독교문화를 전하게 된 지 23년을 맞이했다. CTS가 가장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세대는,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다음 세대인 어린이이다. 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기독교 문화와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탄생한 것이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다.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을 세상에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길 소망 한다"고 말했다.

CTS소년소녀합창단장 율학원 장로는 "이율원의 능력을 기르는 'CTS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를 통해 아이들이 합창의 기쁨을 배우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며, 찬양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음악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CTS제주방송 '제4회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엑스플로2018제주전교대회 성공개회를 기원하는 제4회 함께하는 음악회가 16일(토) 개최된다.

CTS제주방송(지시장 오동환)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단협의회(회장 신관식)와 '엑스플로(EXPLO) 2018 제주전교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종명)'가 공동 주관하는 CTS제주방송 개국 7주년 기념 '제4회 함께하는 음악회'가 16일 오후 7시 제주시 아라동 제주성안교회(담임목사 류정갑)에서 '함께

(Together)'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는 제주전교 1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엑스플로(EXPLO) 2018 제주전교대회'의 성공개회를 위한 것으로, CCM 그룹 어노인팅(기쁨부요심)을 초청하여 제주지역 주민들과 다음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CTS 감경철 회장은 "CTS제주방송이 제주의 교회를 섬기며 제주의 복음화를 위해 영상전교사역을 계

속해서 펼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제주전교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의미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음악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전교 1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엑스플로(EXPLO) 2018 제주전교대회'는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사별오희름과 제주 전역에서 450여 개 제주교회 성도들과 국내외 참가자 총 3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체험담

안산거주 김OO 성도의 어머니(84세)가 이 제품으로 양치질과 가글을 한지 보름만에 **목치름** 비롯 잇몸질환이 개선되고, 시린 증상이 없어지고 구취가 사라지는 체험을 했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세계선교연합회, 전원성전과 안산성전에서 기도회

2018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 위해 합심 기도

세계선교연합회 산하 인도, 미얀마, 나이지리아, 태국, 네팔 선교회 회원들은 지난 5월 27일 오후 전원성전에 모여 은혜와진리교회의 세계선교 목표와 선교지 교회와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였다.

회장 권영호 장로의 사회로 유재성 안수집사의 기도,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과이어의 찬양, 이도휘 목사의 설교로 예배를 드린 후 회원들은 선교보고를 듣고 해외에 있는 은혜와진리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열리는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같은 시간 말레이시아 선교회 회원들도 안산성전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그동안의 선교 성과를 점검하며 말레이시아 여러 지역으로 선교지가 확장되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현지 선교사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은혜와진리교회의 '세계선교 적극화' 목표를 위해 기도하였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장석우원장

교단총회장



임종재 목사
총회장

지도고문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지도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발명교회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부흥사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광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광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장	상임위원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성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진동용 목사 (새소망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천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신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영광교회)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김양인 목사 (복영제일교회)	임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김인찬 목사 (정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발명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계영 목사 (새김전교회)	임영환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오승욱 목사 (연안서복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영광교회)	김병목 목사 (금신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영광교회)	백영자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서경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기진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발명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교회)	박홍열 목사 (오성사랑교회)	성기찬 목사 (동물산순복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임종은교회)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덴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양은혜 목사 (성조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경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영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아은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신교회)	이희숙 목사 (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철 목사 (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 (시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서법석 목사 (가나안영성교회)	옥보에 전도사 (소망농아교회)	정예스터 목사 (예수광기기도원)	김남수 목사 (받은빛교회)

회원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목양포커스

김항주 박사 // MiKemel University 조직신학 교수 및 학장 · Mi Life Christian University 조직신학 교수 및 학장 · 대한신학대 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로마가톨릭과 한국NCCK 직제 통합이 부당한 이유(4)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고 있다.

7) 가톨릭교회는 성경의 정경인 신약 27권과 구약 39권 외에 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기 상권 하권,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등을 구약에 첨가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을 무시한 주장은 정경으로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교황이 마음대로 정하여 성경을 저급하게 취급하는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다(마 5:17-20, 계 22:7, 10-13).

3. 만인 제사직이란 뜻은 성도이면 누구나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가 회개하고 사함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반드시 가톨릭교회의 신부에게 죄를 고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뜻과 완전히 배치된다.

1) 가톨릭교회는 교회가 죄를 용서한다고 가르친다. 여기의 교회는 분명히 그들의 교리서에 주교와 사제로 표시하고 있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1편 #9821, #986, #979, 제2편 #1448, #1461.).

성경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막 2:7, 엡 4:23, 골 3:13, 히 4:16, 대하 6:21, 7:14, 시 25:18, 32:5, 51:2-4, 86:5, 103:2-3).

2) 가톨릭교회는 자기들의 교회만 단 하나의 참된 교회(The one true Church)라고 주장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1편 #811, #817, #830).

성경은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곳이면 교회이며 그 교회의 기초는 믿음이며 그 믿음이 반석이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하고 있다. 그 반석을 성경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고 참된 신앙고백의 기초가 형성된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마 16:16-17, 18, 고전 10:4, 엡 2:20, 행 4:10-11, 빌전 2:7, 시 18:31, 62:1-2, 시 118:22, 사 94:22).

3) 가톨릭교회는 교황의 권위를 높이는 방편으로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있다. 즉 교황은 베드로의 승계자라고 주장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1편 #816).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는 가톨릭교회의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말씀하고 있으며(엡 4:15, 고전 1:2, 엡 5:2, 5:25), 머리된 그리스도는 지체된 세계 각처에 흠어진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다(골 1:18, 엡 1:22, 4:15).

4)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모든 우주적 교회의 주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황이라는 말이다(교회헌장 22항, 주교 교령 2:9항, 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1편 #882, #891, #937.).

성경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그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예정하신 구속을 이 땅에서 완성하시고 성령은 완성된 구속을 성도의 심령 속에 적용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오직 3위 1체 하나님만 우주적 교회의 주권자이심을 밝히 말씀하고 있다(마 28:9, 요 4:26, 14:16, 16:13, 고전 2:1, 고전 2:12-13, 행 10:25-26, 엡 1:20-23, 빌 2:6-7, 13.).

5) 가톨릭교회는 어린 아이의 구원에 관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유아 세례만 받으면 구원이 성립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2편 #250, #2352).

성경은 세례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통한다(창 17:2-14, 행 8:12, 행 18:8). 이는 어린아이가 외적 의식인 세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주장은 성경의 언약론과 배치된다.

6) 가톨릭교회는 성찬에 있어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주장하여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인 몸과 피로 변화한다고 가르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2편 #1376, #1331, #1377).

성경은 성찬에 있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6:53-54, 6:33-35) 이는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요 6:40)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적으로(요 6:63)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받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전 11:23-25)”고 말씀하신 것이다.

7) 가톨릭교회는 미사(Mass) 때마다 십자가에서 피흘려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현재화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2편 #1364-1367). 이는 단 한번 드려진 예수님의 제사직이 구약처럼 매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처럼 신약의 가톨릭교회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성경은 제사직에 대해 명확하게 신구약과 관계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다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다(히 7:27, 히 9:12, 9:28, 히 10:10, 12).

8) 가톨릭교회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와 미사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1367).

성경은 이미 구약의 그림자인 의식 율례는 신약의 실제인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폐기 율례로 규정하고 있다(요 4:21-26, 골 2:16-17, 빌전 3:18). 그러므로 미사를 예수님의 희생제사와 동일시하는 것은 폐기 율례를 재생시키는 유대주의 사상이다.

9) 가톨릭교회는 성인들에게 기도할 것(Praying to Saints)을 주장한다. 성인들은 하늘나라에서 중보자 역할(Intercession)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1편 #828, 제4편 #2683, 교회헌장 40:48-51).

성경은 모든 믿는 자를 성인(Saints)으로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하늘나라에서 중보적 역할을 하는 성인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롬 1:7, 고전 1:1-3, 엡 3:8, 유 1:14, 행 9:13, 32, 41, 롬 8:12, 고후 1:1, 고전 6:1).

10) 가톨릭교회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Confessing Sins to Priest)를 하도록 강요한다. 즉 세례 받은 후에 지은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도록 강요하여 청회할 때 사제가 고백성사를 통해 죄를 사해 준다고 강조한다. 이는 고해성사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2편 #1493, #1456, #1424, #1495, 트렌트 공의회 DS 1542 제2편 #1446, 교회헌법 제 989조 DS 1683:1708조 제2편 #1457).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고 사함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시 32:5, 시 51:2-3, 시 130:1-4, 막 2:7, 행 8:18-22, 담전 2:5, 요일 1:9, 히 10:19).

11) 가톨릭교회는 면제부(Indulgences)를 통해 살아있는 자는 물론 연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다는 망측한 교리를 강요하고 있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2편 #172 #1498, #1471 #1479).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죄를 사해 준다는 엄청난 불경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그리스도만 죄를 대신 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스스로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린 것이다(롬 6:23, 10:9, 고전 15:3, 제 2:8-10, 딤후 3:5-6, 약 1:15, 히 5:7-10, 8:1-4, 10:10).

12) 가톨릭교회는 가톨릭 신자들 모두가 “그리스도(Catholics are Christ)”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인격에 있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신성을 격하시켜 가톨릭 교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 대리속죄가 가능하다는 사악한 교리를 가르키는 것이다(가톨릭교회 교리 문답서: 1994년 발행). 이 내용은 뉴 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의 종교 통합주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성경을 난도질 하는 운동이다.

성경의 명백한 말씀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대언자들이라고 명명했다(신 3:35, 사 45:2, 46:9, 마 24:5, 24, 눅 21:8, 고전 8:6, 벤후 2:1, 계 5:11-14).

(다음호에 계속)

사설

세계AG 실행위, 한국교회 신앙성숙 계기로

최근 종교인식 조사에서 무종교인들에 대한 종교별 호감도는천주교 36.7%, 불교 36.1%, 개신교14.4%로서 계속하향 추세를 나타냈다. 개신교에대한 신뢰도는 16.7%로서전년대비 15% 하락했고 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은 48.4%로 전년대비 14.9%나 증가했다. 낮은 신뢰도의 이유로로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접해서 -18.6%, '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15.6%, '교인들의 비윤리적행동 때문에 -14.9% 등으로나왔다.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28.3%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일부 반 그리스도세력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기생함에 따라 악의적으로 개신교를 핍박해 온 일도 교회의 명예에 실추해 한 부분을 감당했을 것으로보이지만 남의 탓만 하기에는 변명의 소지가 약하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이 겸손과 섬김의 제자라는 인식을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겠다는 일사각오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통감해야할 것이다.

세계하나님의성회 2018년도 실행위원회가 14일(목)과 15일(금) 본 교단 은혜와진리교회 주관으로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과 안양성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2백여 국가, 36만여 교회 6천 8백만 성도들을 대표하는 26개국 47명의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들이 급번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회원들의 기도를 당부한다.

세계하나님의성회는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로 전 세계에 6천 8백만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 복음전파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이어오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범람하고 복음의 순수성이 나날이 흔들리고 있는 후기 산업사회적 세상풍조 속에서도 지구촌의 그 어느 교회보다 사도시대의 순수 신앙을 지키고자 힘써오고 있다.

2016년 4월 뉴욕에서 열린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회(실행위원 조용목 목사 참가)는 2020년까지 50만 교회, 1억 성도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도덕성과 신뢰도의 하락으로 한국교회가 참 빛을 잃어가는 이때 하나님의성회야말로 전 세계적으로나 한국교회에참된 신앙의 성숙과 신뢰회복의 중심이 되어야 할 책무와 자긍심을 갖고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하나님의성회는 WCC를 그 창립 당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케 하는 무리들로 간주하고 이를 배격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성회를 표방한 한국교회 일부 무리들 가운데 WCC와 활동을 같이하며 깊이 가담하고 있는 불의한 지도자들이 있다. 이들을 단호히 세계하나님의성회 조직에서 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미·북을 앞지르면 안 된다

6·25전쟁의 당사국이자 지금도 북핵(北核) 문제로 긴장상태에 있는미·북 두나라의 정상이 대면했다. 역사적 인일이 아닐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했고, 김정은도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랬던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를고귀를 가리고 있었는데요 모든 것을이겨내고 이자리까지왔다”면서근본적 변화를 추구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의 행보를 보면 이미 그동안 양측은 실무회담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6·12 미·북 정상회담은 북핵 폐기 및 미·북 관계 정상화의 첫 행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문 내용은 기대에 못미치는 합의여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선물리미·북 회담이 마친표인양

앞서 가서는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는 일이 될수 있다. 회담 이후 합의 이행 과정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26년의 실패를 거울삼아 완전한 비핵화(CVID)가 치질없이 추진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합의내용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주고, 긍정적 행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미·북 정상회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마치 뱀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남·북이 미·북을 앞질러 가면 북핵 폐기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북한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북한의 선택에 발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목회자 세미나

- 시 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자읍,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

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총회장 임웅재 목사 취임 감사예배



설 교



조용묵 목사
은혜와 진리교회 담임
교단 정책위원장

담 임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담임
교단 총회장

일 시 2018년 6월 26일(화) 오전 11시

장 소 순복음아멘교회(담임 임형순 목사)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104
교회 : 031)543-4727

초 · 대 · 의 ·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님과 증경총회장님들을 모
시고 총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총회원 여러분들
을 초대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6. 2

총회장 임 웅 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 양 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최 병 진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